

[라이브 강의] AI 툴 & 좋은 기획이란

싸피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AI 툴

1. ChatGPT
2. 이미지 생성 AI
3. Music(Sound) 생성 AI
4. 그 외

생성형 AI의 미래, AI Agent의 시대

좋은 기획이란? | 데일리 콘텐츠

교육생 시절로 돌아간다면

코치로 바라봤을때

기획을 돌아봤을때

싸피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AI 툴

1. ChatGPT

- 압도적 1위

2. 이미지 생성 AI

- DALL-E 3
- stable Diffusion
- Midjourney

→ Prompt의 중요성 !

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

3. Music(Sound) 생성 AI

- Suno
- stable Adio
- Meta MusicGen AI

4. 그 외

- Claude : like GPT
- 이미지
 - 인페인팅
 - 이미지 마스킹
 - 이미지에 대해 프롬프트 생성 → 비슷한 이미지 생성
 - merge face
- novita.ai
- KLING AI : 최대 2분까지 생성
- SORA : 비디오 생성 ai, 비싸고 짧음(제한조건)

생성형 AI의 미래, AI Agent의 시대

미래에는 AI Agent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디지털 인력이 되어 고객을 대상으로 일을 처리할 것

- 젠슨황

AI Agent로 인해 사람들은 말만 하면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으며, 이는 개인의 생활과 비즈니스, 사회까지 혁신할 것

- 빌게이츠

AI Agent가 올해 직장에 합류해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변화시킬 것

- 샘 올트먼

좋은 기획이란? | 데일리 콘텐츠

| 김현지 실습코치님

교육생 시절로 돌아간다면

이렇게 해서 좋았다

- 팀원 공통 분모
 -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찾아보기
 -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
 - 만약 다르다면, 다른 팀원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한다
 - 최종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
- 동향 & 트렌드
 - 아침마다 동향 / 트렌드
 - 기업 뉴스, IT, 최신 논문 등 찾아보기
- 구현 가능성
 - 구현 가능성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기

이렇게는 안하겠다

- 프로젝트 서칭
 - 아이디어가 갇힌다
 - 시야가 좁아져 버리는 경향
- GPT 의존
 - 처음부터 의존하기 보다
- AI 무서워하기
 - 프론트 하나만 한 것이 아쉬웠음
 - 특히, ai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

코치로 바라봤을때

이런 서비스는 약간 아쉽다

- 외부 사이트로 이동하게끔 하는 서비스
- 실 사용자를 찾기 힘든 서비스
- 타겟이 바뀌어도 자연스러운 서비스
 - 주제를 변경했을때 말이되면 최대한 피하기
 - 꼭 이 타겟을 위한 기능이 추가되어있으면 된다
- 팀원 모두가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의 서비스
 - ex) 텃밭 가꾸기 공유 서비스 →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름
 - 키워드가 좋아도 세부 사항에 대해 작성해보는 것이 힘들다
 - 적어도 2,3명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여야 속도감에서 좋음

기획을 돌아봤을때

- 6명 모두가 동의하고
-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을까를 고민